

“국제 경쟁 치열... 전략적 접근 필요”

전북자치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계획 밝혀
“타 국가들 사례 참고해 경쟁력 키울 수 있어”
종목별 세계선수권 등 실현 가능 대회 단계적 유치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 경쟁에 본격 나섰다. 조영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하계올림픽추진단장은 지난달 30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 경쟁이 치열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며 유치 활동 계획을 밝혔다.

리비아도 매년 국제 스포츠 행사를 열며 인프라를 차근차근 쌓고 있다. “우리 전북도 이런 전략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실현 가능한 국제대회를 단계적으로 유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영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하계올림픽추진단장이 지난달 30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비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경기장 배치안도 내부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다. 다만 연대 도시 및 시·군과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어 공식 발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무엇보다 재정 부담이 큰 만큼 국비 확보와 도민 공감대 형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매주 수요일을 ‘하계올림픽 유치 브리핑의 날’로 정하고, 도청 기자들에게 유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국민 삶 평안하게 할 나라 만들것”

이동진 희망찬 동행포럼 상임대표, 무소속 출마 선언



이동진 희망찬 동행포럼 상임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때마다 나라를 지켜온 호남 정신으로 국민 모두가 평안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향 전북에서 출마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 “빛의 혁명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 앞에 서게 돼 감격스럽다”며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치, 국민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대 핵심 공약으로 ▲창의 성장 ▲친환경 성장 ▲미래과학기술 육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특정 정당이나 지역, 계층이 아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과 성장, 정치 혁신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전용태 도의원, 농어촌유학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농어촌유학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전 의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되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견지할 예정이고, 전북에서 농어촌유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5월 7일에 열리는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새만금도민회의와 정책협약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새만금 개발 방향에 대한 정책변화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더민주전북혁신회의(공동상임대표 김용만)와 새만금도민회의(공동대표 오창환)가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정책협약식을 열어 “글로벌 기후 및 환경 위기 상황에서 새만금이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5대 정책과제를 선정,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전북지역 변호사들이 지난달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한덕수 대통령 선거 출마설 비판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100인 공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덕수 대선 출마, 민주주의 훼손”

전북지역 변호사 100명 “공직자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비판
“호남 출신 자처 대망론 편승 기회주의적 행태”... 지역에 대한 태도도 도마위

전북 지역 변호사 100명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선거 출마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며 즉각적인 출마 철회를 촉구했다. 이희성 변호사 등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지난달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인 공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행정의 신뢰가 무너진다”며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운동 전 금지 의무, 공직자 지위 이용 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에 대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변호사들은 “한 국무총리가 전북 출신임에도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고향을 외면해 온 한 국무총리의 행보는 도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이라며 “호남 출신을 자처하며 대망론에 편승하려는 태도는 기회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지금이라도 헌법과 국민, 그리고 전북 도민 앞에 서고 대죄하고 대선 출마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산단, 유망 중기 투자 유치로 ‘활기’

한국신재생에너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350여억원 투자 결정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달 30일 (주)한국신재생에너지와 ‘열분해유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주)한국신재생에너지가 기존 평택공장(2025년 6월 준공 예정)에 이어 새만금 국가산단에도 동일한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약 350억 원을 새만금에 투자하고 4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에게 투자하기 좋은 조건과 환경을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설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선관위,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5-9일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5월 5일부터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2개 이상의 선관위에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되고 구·시·군선관위별 선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선착순 마감한다. /이만호 기자

“정권교체 · 민주주의 회복 위해 역량 보탬 것”

민주 윤준병 의원, 이재명 선대위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 임명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에 임명됐다. 윤 의원은 서울 시 제1행정부시장 등 36년간의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정책통’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민생법안과 경제 관련 법안 140여 건을 대표 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는 지난달 30일 공식 출범했으며, 현정질서 회복과 민생경제 재건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윤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이뤄내고, 시대정신인 내란종식과 헌정수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으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을 위한 농정 공약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며 적극적인 정책 활동을 예고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추진 법적 근거 마련

민주 이춘석 의원, 법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업을 지속하면서 농지를 기후위기 대응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업인 등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일정 기간 일



시 사용 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영농형 태양광 관련 기술개발·보급, 우선구매 등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이로써 전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농업을 지속하면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최후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도 ‘농업과 에너지가 함께 가는 시대’를 강조하며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약속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전북농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민주 안호영 의원,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회와 협약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사)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회협회(조은희 협회장)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관계자 및 지도

사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 울산,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인사들이 함께했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협회는 △산안재해 예방 및 지도사회의 향상을 위한 정책 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전문성 강화 과제에 공동 발굴 및 추진 △실용성 확보 및 정기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실질적 이행 추진 등에 합의했다. /이만호 기자